



청춘들의 건강을 위해 뭉친 아모틱 협동조합 멤버들. 왼쪽부터 김한열, 김지은, 추민수, 심원보, 박명지, 이종윤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춘들이여! 제대로 즐길 준비됐나요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

(5) 아모틱 협동조합

‘주말에 뭐해? 마땅한 일 없으면 산책 한 번 해볼까? 광주에 갈만한 곳이 어디 있어?’

지난해 6월 오후, 건강한 청춘 30여명이 광주역 앞에 모였다. 청춘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자 시작한 ‘광주 얼마나 걸었니?’ 두 번째 짙은 ‘마을 박물관과 숲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광주 걷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들은 ‘청춘들의 잃어버린 취미를 찾아주기 위해’ 모인 ‘아모틱 협동조합’. 아모틱(AmoTiC)은 Amor Times Creatio(사랑 곱하기 창조)의 줄임말로, 취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청춘들이 여가를 ‘재대로’ 즐기도록 길잡이가 되주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다.

추민수(29) 이사를 주축으로 김한열(29), 이종윤(28), 박명지(여·27), 심원보(25)씨 등이 지난해 1월 협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이어 12월 청춘건강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걸 잊지 않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취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다양한 취미를 찾아주고, 스스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청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춘건강디자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추 이사장은 아모틱 협동조합이 ‘청춘들의 건강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도면’이라면, 청춘건강디자인센터는 청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실제로 드나들 수 있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광주 전남대 후문 골목길에 위치한 청춘건강디자인센터에는 카페 ‘스머들다’와 문화공간 ‘에포케’라는 두개의 방이 마련돼 있다. ‘스머들다’에는 청춘들의 건강한 습관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웠다. 1주일에 한번이라도 커피가 아닌 건강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홍삼폴차, 수국차 등 10여가지가 넘는 음료를 판매한다. 나눔문화의 일종인 ‘까치밥 홍시 가게’ 프로젝트에도 동참하고 있다.

‘에포케’는 청춘들에게 취미활동을 선물하는 아지트다. 음악공연과 영화감상, 취미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이들에게는 문화공간으로 대여도 해준다.

센터가 설립된 지는 이제 갓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그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은 많다. 첫번째가 매월 한차례 청년들에게 여행코스를 개발해주는 취미 프로그램 ‘광주 어디까지 걸었니?’다.

“청년들이 어떤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나 조사하고, 조합원들과 스터디를 해봤어요. 남자들은 1위가 게임, 여자는 카페를 찾는 것이더군요. 다행인 건 남녀 공통 1위가 여행이었어요. ‘돈 없고, 시간이 없어서’ 취미 활동이 부담스럽다는 이들을 위해 여행코스를 개발해 보자고 기획하게 ‘광주 어디까지 걸었니’예요.”

5월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만 8개 코스를 개발했다. 새로운 코스를 찾기도 하고 기존 코스를 즐기면서 ‘여행답게’ 걷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카페 ‘스머들다’에서 진행되는 ‘건강 맛집’은 건강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가에 건강한 먹거리가 너무 없다는 우려로 시작한 ‘건강 맛집’은 단순한 먹거리 소개에서 업그레이드해 ‘소셜 다이닝(낮선 이들이 모여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문화)’ 형식으로 진행한다.

‘SAL 콘서트’도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Saturday Acoustic Live’ 약자로 매월 1차례 토요일 인디밴드가 공연한다. 3개월에 한번씩 클래식 그래피나 꽃꽂이, 보드게임 등 젊은이들에게 ‘취미’를 소개하고 권유하는 ‘취미박람회’도 진행한다.

추민수 이사장은 “취업과 입시 경쟁으로 일상의 여유를 포기하고 사는 청춘들이 이력서 취미란에 만국 공용 취미인 ‘독서, 음악 감상’이라고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문화공간에서 조그마한 일탈을 꿈꾸고 있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여유와 열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카페 ‘스머들다’ 문화공간 ‘에포케’

여행코스 ‘광주 어디까지 걸었니?’

매월 한차례 인디밴드 ‘SAL 콘서트’

‘청춘건강디자인센터’ 운영

:

건강한 일탈 꿈꾸고 열정 되찾길



광주일보 문학상 작가 이원화 ‘키스가 있는 모텔’ 펴내

소설가 이원화의 작품은 전통적 서사기법에 닿아 있다. 도발적 실험이나 환상적 서사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현실의 일면을 응시함으로써 인물들이 몸담고 있는 세계를 증언한다.

‘은행나무에 대한 소고’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들이나 ‘키스가 있는 모텔’에 등장하는 조선족 출신 여성은 생계를 위해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견뎌야 한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에 지피는 희망의 불씨

광주일보 신춘문예(2006년) 출신 이원화 작가가 두 번째 작품집 ‘키스가 있는 모텔’(문학들간)을 펴냈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떠올리게 할 만큼 평범한 캐릭터다. 그들이 겪는 일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익숙하다. 그만큼 개연성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물수제비를 뜨다”와 ‘노을 속으로 날아간 새’를 제외하면 수록된 작품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들 인물들은 물질적인 궁핍에 매여 있으면서도 생존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그러나 이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곳은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일상화되어 있고 더러는 모멸적인 성희롱이나 잔혹한 강간이 벌어지기도 한다.

작가는 이들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연륜의 깊이로 바라본다. 이러한 응시는 소설을 쓰는 근본적인 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는 서사적 매개로 작용하기도 한다.

작가는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 보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처럼 나의 소설도 그러한 현실을 꿰고 나아갔으면 한다”며 소감을 피력한다.

해설을 쓴 전철희 평론가는 “이원화의 소설은 단순히 천민자본주의의 변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토크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런 공간 속에서도 정직성과 성실성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인생들에 깊이 있는 성찰을 시도한다”고 평한다.

한편 이 작가는 제 7회 광주일보문학상(2011년)을 수상했고 작품집 ‘길을 묻다’가 2011년 문체부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상훈·형석 형제 13일 목요일연리무대·빛고을국악전수관

아쟁 연주자 김상훈과 대금 연주자 김형석은 형제다. 아버지 김승일(조선대 음악학과 명예교수) 교수 역시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국악 작곡 발표회를 갖는 등 꾸준히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가져왔다.

상훈씨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아쟁 수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목원대 겸임교수로 출강중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인 형석씨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아쟁·대금 두 명이 선사하는 국악한마당



두 형제가 목요일연리 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13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연주 레퍼토리는 대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대금독주 ‘청성곡’과 지역 초연곡인 ‘박대성류 아쟁산조’, ‘서용석류 대금 산조’다. 마지막 무대는 남도민요의 대표곡인 ‘육자백이’와 ‘흥타령’이다.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로 전남대 국악과,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과, 광주예술고에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장단은 이태백(목원대 한국음악과) 교수와 임현민(남원시립국악단)씨가 맡는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